

### 3강 중보기도의 능력 - 구하라! 열방을 주리라

주누가 선교사 / 2002. 6. 30

열방을 덮고 있는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은 씨가 되는 ‘말씀’ 뿐 아니라 밭이 되는 ‘환경’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에 맞는 말씀이 선포될 때 복음은 힘있게 전달된다.

첫째, 세계는 지금 세계화 되어 있다. 전 세계가 하나의 문화, 법, 체제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세계화는 인본주의적 세계화이고 그 이면의 이데올로기는 ‘휴머니즘’이다.

2천년 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경계하라고 하시며 ‘휴머니즘 세계화’를 경고하셨다. 하나님보다 인간 이성 논리주의를 우선시하는 ‘휴머니즘’이다.

둘째, 문명충돌이다. 세계화와 문명 충돌은 상반되는 현상이다.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세계화되고 있지만 문화와 종교적인 면에서는 보수성과 폐쇄성이 더해가고 있다.

셋째, 포스트모더니즘이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자신이 경험한 특별한 체험을 집단의 진리에 앞세운다. 때문에 ‘예수가 진리’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독선이요, 편견과 왜곡이라고 반발할 수 있는 환경이다. 다원주의, 종교 근본주의, 세속주의 등 전세계적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적대하는 환경이 팽배해 있다.

이 환경처럼 복음을 거부하는 창의적 접근 지역의 수는 점점 늘어난다. 1989년 119개였던 지역이 지금은 140개 국을 넘고 있다. 이것은 전 후방이 없는 영적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구의 총체적 영적 전쟁에 맞서 선교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다.

과거에는 선교사 중심의 선교를 했으나 지금은 모든 성도가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한다. 전 기독교 인력이 총동원 해야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그 때 선교에 대한 부르심도 동시에 받는다. ‘선교에 대한 소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깨달느냐 못 깨달느냐’하는 차원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은 다 선교사로 나가라는 말이 아니라 이곳에서 선교사적 삶을 살라는 것이다. 그 핵심은 ‘중보’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열방을 구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기도 없는 선교는 불가능하다.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것이 바로 ‘중보’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은 ‘이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기다’가 아닌 ‘견디다’로 표시되어 있다. 주님의 교회가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뜻이다.

주님은 결정적인 열쇠를 제자들에게 주신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혀에 기도라는 열쇠를 얻고 주님을 향해 간구하면 음부 권세를 지키는 지옥문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이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다.

이사야 40장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광야에서 여호와와 길을 예비하라’고 했다. 또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했다. 광야는 우리의 마음이다. 정리하고 평탄케 하는 것은 회개이다. 회개를 통해 마음의 광야를 평탄케 하면 주님이 들어오시고 우리 가운데 하

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서 준비된다.

준비된 우리는 하나님 왕국이 확장되기 위해 움직이고 증보하고 노력해야 한다. 때로 환란과 어려움, 고난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 강력한 무기인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 출처 : 온누리신문**